

KITA 도쿄지부

4월
제1호

2021年4月5日

Vol. 55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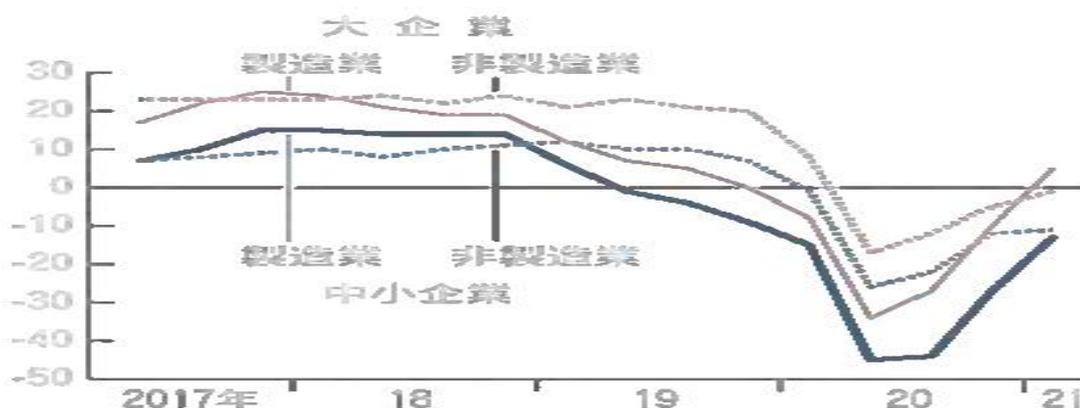
-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 日 단기경기체감, 제조대기업 중심으로 회복세 뚜렷
 - 日, 석탄화력 수출지원 중단
 - 일본 반도체 대기업 화재로 자동차 160만대 감산 전망
-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 日, 2월 완전실업률 2.9% 기록, 향후 악화 우려
 - 日, 2월 광공업 생산지수, 2개월 만에 하락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1 日 단기경기체감, 제조 대기업 중심으로 회복세 뚜렷

- 일본은행(중앙은행)이 1일 발표한 3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간)에 따르면 미중 등 해외경제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생산 활동 증대로 제조 대기업의 체감 경기가 대폭 개선, 신종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경기체감을 나타내는 업황판단 지수(DI)¹⁾를 보면 제조 대기업이 +5로 지난번 2020년 12월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
 - 미중을 비롯하여 세계경제의 개선과 외환시장의 엔저 기조에 따른 수출 환경 호전이 자동차,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의 업종의 체감경기가 개선
 - 반면 비제조 대기업은 4포인트 상승했지만 -1에 그쳐 신종코로나로부터의 경기회복은 이극화의 양상이 뚜렷
 - 중소기업에서도 제조업은 14포인트 개선으로 -13, 비제조업은 1포인트 개선의 -11로 회복이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
 - 외출자제 등으로 숙박·음식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많은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보다 뚜렷함.

<업황판단지수(DI, 「양호」-「나쁨」>



1) 업황판단 DI는 경기감이 「양호」로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쁨」 비율을 뺀 수치임.

□ 3개월 후 전망을 나타내는 DI는 대기업 제조업에서 +4로 지금보다 1포인트 악화될 전망

- 반도체 부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의 체감 경기의 회복이 더디고, 최근 발생한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공장 화재로 제조업의 회복은 한층 어려워질 우려도 있음.

<업황판단지수(DI)의 내역>

	금변(지난번 대비)	선행(금변 대비)
대 기 업	5(15)	4(▲1)
	▲1(4)	▲1(0)
중견기업	▲2(15)	▲6(▲4)
	▲11(3)	▲12(▲1)
중소기업	▲13(14)	▲12(1)
	▲11(1)	▲16(▲5)
전 규 모	▲6(14)	▲7(▲1)
	▲9(2)	▲12(▲3)

※ 선행은 3개월 후의 전망. ▲는 마이너스, 악화. 상단은 제조업, 하단은 비제조업

□ 금년도 설비투자 계획관련 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가 지속

- 수출·생산의 개선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제조업에서는 3.0% 증가로 신종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투자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전년도의 투자급감에 따른 반동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비제조업은 1.0% 감소로 특히 중소기업은 7.9%감소하여 2020년도에 이어서 큰 폭의 마이너스가 전망됨
 - 신종코로나의 타격을 직접 받고 있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 억제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2 日 정부, 석탄화력 수출지원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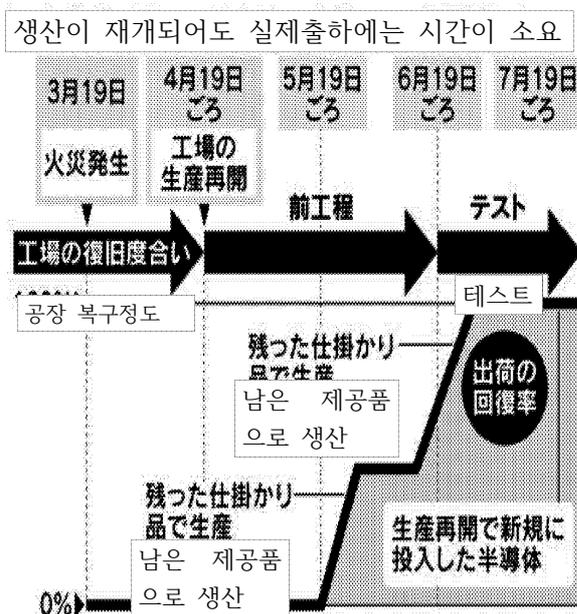
- 日 정부, 석탄화력 발전소의 수출지원에 대한 신규 안건 전면 정지
 - 일본 정부는 탈탄소를 중시하는 구미와 보조를 맞추어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먼저 석탄화력 발전소의 수출 지원에 대한 신규 안건을 전면 정지키로 검토 중이며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저리용자의 제공은 중지키로 함
 - 그동안 일본정부는 석탄 화력의 수출에 관해서 1)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적은 첨단 설비에 한정하여, 2) 상대국이 탈탄소 방침을 표명하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 한정하여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한 저리용자를 인정해 왔음
- 스가 총리, 「기후 변동 서밋」에서 탈탄소 협력 내용을 표명할 예정
 - 스가 총리는 4월 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 회담에서 탈탄소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며 미국 주최로 22일에 열리는 ‘기후 변동 서밋’에서 정상 간의 논의된 내용을 표명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임
 - 기후변화 대책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바이든 정권의 출범이후 미국의 일본에 대한 관련 압력이 거세졌음. 또한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도 2월 일본에 대한 압력을 더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도상국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필요
 - 일본의 석탄 화력의 주된 수출처였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전력의 40% 이상을 석탄에 의지하고 있음
 - 아세안 등의 개도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조달하는 인프라 정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될 우려가 있음. 탈탄소와 성장을 양립할 수 있는 도상국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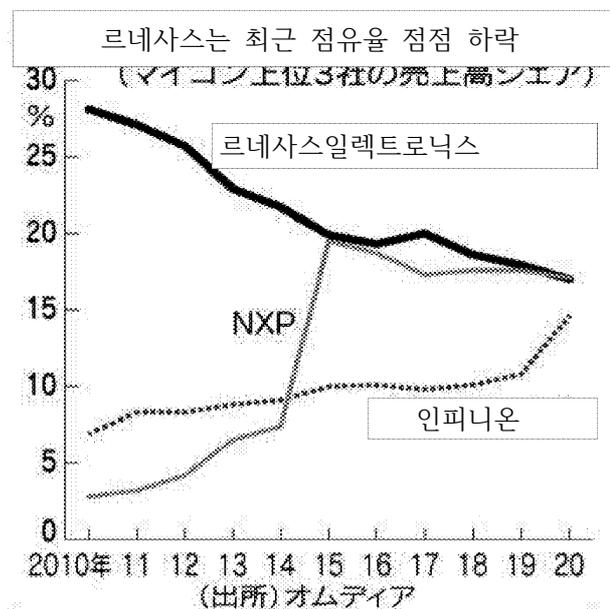
3 일본 반도체 대기업 화재로 자동차 160만대 감산 전망

- 일본 반도체 대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의 화재 여파로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자동차사가 일부 차종의 감산에 돌입하는 등 금년 2사분기 중 세계 자동차 생산이 160만대 감소 전망
 - 화재 발생부터 30일 후인 4월 후반에 일단 가동을 재개할 방침이나 검품 등 각종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출하가 화재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90~120일 정도 소요되고 최대 7월 후반까지 본격적인 제품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
-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은 이번 화재사고 이전부터 발생이 시작하였으며 이번 사고로 그 영향이 전세계 업체에게로 확대 가능성
 - 금년 2월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한파로 네덜란드의 NXP세미콘덕터스와 독일 인피온테크노로지스가 생산을 중단
 - 미국 GM은 24일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미국 미주리주 등의 공장에서의 감산을 발표
 - 일본 르네사스와 많은 거래관계가 있는 독일 부품 대기업인 콘티넨털도 감산이 불가피하며 이렇게 되면 유럽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에도 영향을 받게 됨.

<실제 출하까지의 소요시간>



<르네사스의 마이콘 세계 점유율>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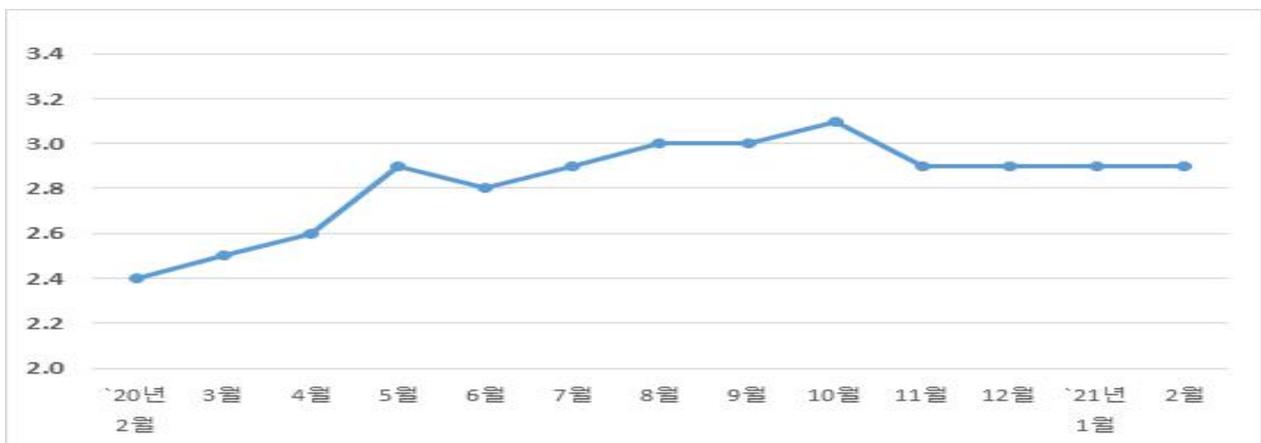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1 日, 2월 완전실업률 2.9% 기록, 향후 악화 우려

□ 2021년 2월 완전실업률 전월과 같은 2.9% 기록, 향후 악화 우려

- 일본 총무성이 지난 30일 발표한 2021년 2월 완전 실업률은 지난달과 같은 2.9%를 보였음
- 코로나 감염 확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고용조정 조성금”의 단계적 축소로 향후 실업률 악화가 우려됨
 - 2%대 초반이던 완전 실업률은 코로나 감염 확산과 동시에 2020년 3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함. 긴급사태 선언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침체해 리먼 쇼크 후의 5.5%('09년 7월)나 동일본 대지진 후의 4.7%('11년 6월)에 임박할거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는 2020년 10월의 3.1%가 최악으로 2020년의 평균은 2.8%였음
 - 실업률 상승을 억제한 것은 ‘고용조정 조성금’의 효과가 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이 줄어들어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쉬게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 사태에 특례로 조성 규모를 확대해왔음
 -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특례”는 5월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으로 향후 실업률이 악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월별 완전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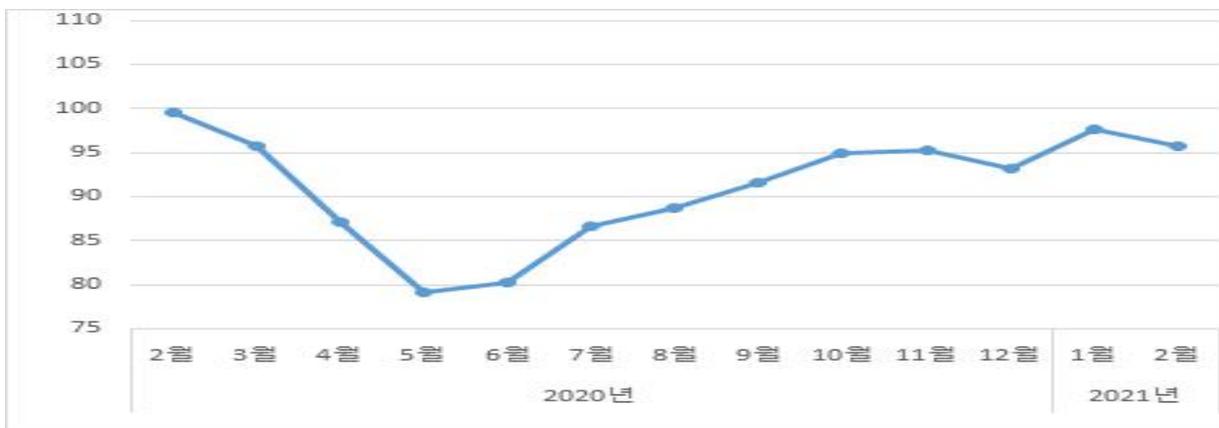
자료원 : 총무성 통계자료 이용하여 작성

2 日, 2월 광공업 생산지수 2개월 만에 하락

□ 2021년 2월 일본 광공업 생산지수 95.7% 기록

-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1년 2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5.7²⁾으로 전 달과 비교하여 2.1%의 하락을 보였음. 일본광공업 생산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최근 2개월 만임
- 15개 업종 중 11개의 업종이 하락하고 그 중에서도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자동차공업이 지난달 대비 8.8%하락, 작년 동월 대비 6.1%하락을 보이며 전체 감소 기여도의 64.7%를 나타내었음
 -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현상에 더하여 최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 현에서 발생한 진도6의 강진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조달에도 차질이 생기며 자동차 생산이 침체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임
- 반면, 상승한 업종으로는 생산용 기계공업(전월대비 3.7% 상승), 자동차를 제외한 운송기계공업(전월대비 4.6% 상승)등이 있었음
- 향후 광공업 생산지수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인 르네사스의 주력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영향도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기존의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조를 유지했으나 “향후 반도체 공급망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을 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월별 광공업 생산지수 증감추이>



자료원 : 경제산업성 통계자료 이용

. 끝.

2) 2015년=100 기준